

HALOPERIDOL로 치료중인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RIFAMPIN 병용 및 금단이 HALOPERIDOL 혈중농도 및
임상상태에 미치는 영향

인제의대 정신과 및 약리:김영훈, 신재국, 차인준
마산 동서병원 정신과 및 내과:심주철, 김성익, 박근무, 이용석
서울의대 약리 및 정신과:장인진, 우종인

현재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에서는 결핵병동을 별도로 운영해야 할 만큼 정신분열병 환자들에서의 결핵 이환율은 높다. Haloperidol은 물론 Carbamazepine, Rifampin 등의 약물이 간의 oxidative enzyme system의 강력한 inducer라는 것은 익히 알려져 온 바이며, 항결핵제를 투여한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재원 일수가 길고, 항정신병약물의 치료용량이 높다는 사실은 Haloperidol과 Rifampin의 약물 상호작용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저자들은 심장, 신장, 간장 기능이 정상인 17명의 정신분열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항결핵제 Rifampin이 Haloperidol의 혈중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이들 약물상호작용이 임상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정신분열병 환자들에 대한 항결핵제 치료시의 항정신병약물 조절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비활동성 결핵으로 추적 검사중인 12명의 정신분열병 환자들(A군)과 활동성이 정지되어 항결핵제 투약의 중지가 요구된 5명의 정신분열병 환자들(B군)로서, 항정신병약물은 Haloperidol만을 사용했으며 정신증상평가척도상 최소 2주이상 증상이 안정된 상태의 환자들이었다.

저자들은 이들에게서 Rifampin의 병용(A군) 및 금단(B군)이 혈중 Haloperidol의 농도에 현저한 변화를 초래하고, 25% 이상의 환자들에서 이들 약물 상호작용의 결과로 임상 증상이 악화됨을 관찰하였기에 이를 보고한다.